12장공련 명칭 제2호

2000년 6월 21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각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전성분표시명칭위원회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에 있어서 “표시별 명칭”의 취급에 대해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재작년 9월부터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명칭에 대한 검토를 개시해, 6월 20일까지 No.1~No.5의 성분리스트(편의상 “안”을 붙였습니다)를 발표하였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원료에 따라 “표시명칭” 외에 “표시별 명칭”을 두었지만, “1성분 1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2004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표시별 명칭”을 성분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함께 봐 주시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아래

1. 표시별 명칭을 폐지하는 이유

1) 장원기 및 장배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표시별 명칭으로 남긴 사례도 많지만, 본래는 “1성분 1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로 한 것.

2) 기존부터 소위 “INCI 코드”와의 대응을 중시하여, INCI 코드의 번역 혹은 음역을 원칙으로 명칭 작성을 하였지만, 이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1성분 1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것.

3) 소비자 측면에서도 “1성분 1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것.

2. 현재 표시별 명칭의 취급

대부분의 표시별 명칭은 성분 리스트에서 삭제되지만, INCI 코드와의 대응적 관계에서, 표시별 명칭이 표시명칭으로 전환되어 존속하는 성분도 있습니다(그 경우, 현행의 표시 명칭은 삭제됩니다). 또한, 표시별 명칭을 표시명칭으로 이행하는 것 등은 올해 10월 말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표시별 명칭이 삭제되는 시기

2004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성분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더불어, 2004년 4월 30일 이후부터 표시별 명칭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단, 이 경우에는 성분 리스트에 없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고 용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 제조 등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유럽/북미의 예를 봐도, 성문명칭(INCI 코드)이 변경되는 예는 드물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관해 화장품 제조업자 등도 순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위한 명칭작성 신청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INCI 코드”가 없는 성분에 대해서도 신청 접수를 하고 있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INCI 코드”를 이미 취득한 성분, 혹은 “INCI 코드” 취득을 위해 신청한 성분 만 수리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므로, 이 점도 충분히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